

9년 동안 갇혀 산 6남매 구출



▲ 6남매가 갇혀 지냈던 농장 모습

네덜란드의 고립된 농장에서 '지구 종말의 날'을 기다리며 숨어 살던 성인 남성과 이 남성에게 의해 세상과 고립된 생활을 한 6명의 남매가 구출됐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 북동부에 위치한 드렌터 주 루이너워트의 한적한 농장에서 탈출한 25세의 남성이 술집에 와서 도움을 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술집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농장을 찾아가 집안 서랍장 뒤에 숨겨진 지하 저장소로 연결된 비밀통로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경찰은 침대에 누워있는 58세의 남성과 세상을 전혀 접하지 못한 16세-25세 정도의 '성인이지만 어린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5명의 자녀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성인 남성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구 종말의 날'을 기다리며 농장에서 자급자족을 하며 세상과 고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명의 남매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이들의 엄마는 농장으로 이주 전에 사망했고 농장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58세의 남성은 6남매의 생부는 아니며 남매들은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주민들은 "가끔 농장에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우린 그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죽은 줄 알았던 딸, 30년 만에 재회

캘리포니아에 사는 티나 베자라노(47)라는 이름의 여성이 '족보사이트' 덕분에 죽은 줄 알았던 자녀와 30년 만에 만나게 됐다.



▲ 30년 만에 재회한 크리스틴(왼쪽) 그의 어머니 티나

14일 CNN에 따르면 학대를 일삼는 어머니와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란 티나는 17살에 뜻밖의 출산을 하게 됐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기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그녀는 출산 직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티나는 "출산 다음 날 내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난 지 15분 만에 죽었다고 말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라고 설명했다.

몇 달 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죽은 아기를 잊을 수 없었던 그녀는 남편과 함께 매년 아기의 기일을 챙겼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기가 죽은 지도 어느덧 30년이 된 지난해, 티나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날아왔다. 메일

을 보낸 크리스틴(29)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뜻밖에도 "당신이 내 어머니인 것 같다." 며 대화를 요청했다.

이들의 사연은 이렇다. 티나는 2017년 에릭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설득으로 '족보사이트'에 DNA 데이터를 등록했다. 크리스틴도 그 정보 덕분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티나의 어머니는 아기를 입양 보낸 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나타나자 티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물론 딸이 아들이 되어 나타났지만 말이다. 크리스틴은 성전환을 한 후 현재 뉴저지에서 아내 그리고 아기와 함께 살고 있다.

티나는 "상관없다. 딸이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내 자식이다. 그저 살아있는 게 다행일 뿐"이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크리스틴은 친어머니가 자신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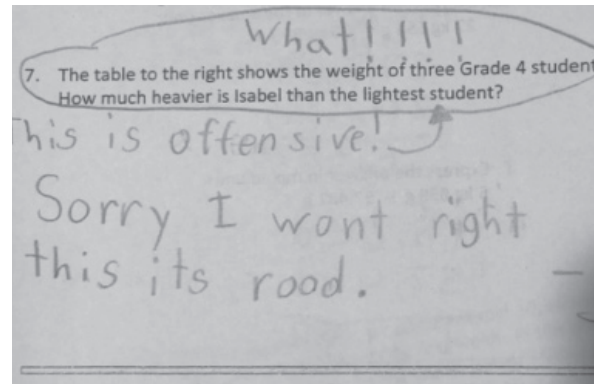
문제 정답 대신 소신 밝힌 10살 소녀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숙제로 나온 수학 문제의 설명이 어떤 사람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며 정답 대신 자신의 의견을 써내 화제다.

11일 NBC에 따르면, 유타주 머리에 사는 10세 소녀 파체코는 최근 수학 숙제를 하던 중 문제의 설명을 읽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는 '오른쪽 표는 4학년 학생 3명의 몸무게를 보여주는데 이사벨은 가장 몸무게가 적은 아이보다 얼마나 무겁나?' 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파체코는 문제의 질문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답 대신 "불쾌하다. 미안하지만 답을 쓰지 않겠다. 무례하다." 고 적었다.

평소 아이가 숙제했는지 확인한다는 파체코의 어머니는 이날 역시 숙제를 살피던 중 아이가 위와 같이 써놓은 글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그러자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아이의 답변에 대해 용기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파체코가 적어 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파체코의 어머니는 "아이는 문제의 질문에 자신보다 다른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했다." 고 말했다.

한편 파체코는 학교에서 이런 답에도 교사에게 혼나지 않았다. 오히려 파체코의 생각을 이해하고 아이의 글에서 틀린 철자와 문법을 바로잡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교육, 학군 전문가로 대학입시 코디네이터로 일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알맞는 학군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The REALTOR You Can TRUST



Looking for the Right Agent for the Job of Selling / Buying your Home?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미국교육전문가
입시코디네이터
College Consultant

949.501.8555

Fax: 714.367.1399

LeachangRealty@gmail.com

605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